전법 일기

1학년 대학 새내기이지만 '불교동아리 회장'입니다

2018년 3월, 대학교 새내기 시절 동아리 박람회에서 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불교동아리 찾기였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이하 대불련)에서 활동했던 어머니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던 가정환경 때문이었는지, 불교의 인연이 나를 이끌었는지, 자연스럽게 인제대 불교학생회(IBS) 가입으로 이어졌다. 같은 해 하반기, 당시 동아리 회장이 군 입대를 앞두고 1학년인 내게 동아리 회장직을 권유했다.

1학년으로 회장의 역할을 맡기에 부담을 느꼈으나,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과 깊은 인연을 느꼈다. 1학년 새내기지만 자연스럽게 대학교 중앙동아리 회장이 됐다. 이 사건이 불교와 큰 인연의 시작이자, 재학 내내 그리고 지금까지 내 인생에 큰 파장을 가져다 줬다. 이번 칼럼을 통해 어른의 종교, 어려운 종교라는 인식이 큰 불교가 20대에게는 어떤 모습인지 20대로 살아 온 지 7년차인 나의 경험들을 나열해 소개해보려 한다.

누군가 나의 대학교 1학년이 어땠냐고 물어본다면, "연속된 좋은 인연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할 것 같다. 우선 내가 만난 좋은 인연을 나열해보자면 첫째, 마음이 맞는 좋은 동아리원 선후배, 동기들과의 인연. 둘째, 불교와의 인연, 내가 몰랐던 나 자신을 만나게 한 인연. 마지막으로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과의 인연이 있다.

그 중 오늘은 첫 번째 인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한다. 새내기 동아리 회장으로서 처음 맞이했던 동아리 박람회는 큰 부담이었다. 동아리 회원 수가 저조해 박람회를 통해 많은 회원 가입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하지만, 불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 무겁고 어렵다는 인식이 강해 학우들의 눈길을 끌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나의 소중한 친우인 동아리 회원들과 긴 고민 끝에 대단한 종교적 깨달음보다는 우선, '절에 데리고 다녀보자'를 목표로 삼았다. 그런 와중 졸업을 위해서 봉사시간이 필수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비록 학우들에게 봉사는 졸업을 위해 해야만 하는 일이며,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것일지라도, 봉사를 통해 작은 뿌듯함을 시작으로 불교와의 인연을 맺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후 불교재단 장애인복지관인 도림원과 연결해 동아리 정기봉사를 진행했고,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시작은 봉사시간을 채우고 싶은 학우들이었지만 결국, 봉사를 통해 불교의 가르침을 몸으로 먼저 체험하고 나아가 불교 행사 참여로 이어졌다. 사찰 방문부터, 불교에 대한 공부까지 동아리 회원들의 삶 깊숙히 불교가 영향을 주게 된 것이다.

"언니, 절에 오니까 마음이 편해져요"라는 말을 듣고 불교를 통해 그들의 삶의 작은 평화를 선물했다는 생각에 기쁘고 설레 잠 못 이루던 날이 있었다. 새내기의 패기가 더해져 동아리를 잔잔히 옳은 방향으로 잘 이끌었다는 생각에 뿌듯했던 겨울 밤이었다. 이를 가능케 한 동아리 회원과의 인연에 부처님께 감사드렸다.



장남주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전 부산지부 회장



김형중의 깨달음의 노래 ⑦ 왕유의 오도송

'詩佛'이 바라본 삼라만상

사슴 울타리(鹿柴)
텅 빈 산 사람은 보이지 않고(空山不見人)
아득히 들려오는 두런거리는 사람 소리 뿐(但聞人語響)
보라 석양빛이 숲 속 깊숙이 들어와(返景入深林)
다시금 푸른 이끼 위에 비치네(復照靑苔上)

당나라 삼시인(三詩人)인 이백을 시선(詩仙), 두보를 시성(詩聖) 그리고 왕유(699~759)를 시불(詩佛)이라 칭한다. 왕유는 돈독한 불심으로 불교적인 삶을 살아 유마힐 거사에 빗대어 왕마힐(王摩詰)이라고도 불렸다.

왕유는 중국 장안의 동남쪽에 위치한 종남산과 남전산 사이에 흐르는 풍광이 빼어난 강 기슭에 망천장(輞川莊)이란 별장을 짓고 벼슬이 상서(장관)에 이르렀지만 40세에 사직하고, 평생을 홀로 살면서(부인과 30세에 사별) 낮에는 불교경전을 보고 밤에는 참선을 하면서 자신이 깨달은 선적 경계를 시로 읊었다.

그가 망천장에서 읊은 산수 자연시 가운데 '사슴 울타리'는 선적인 풍취가 은은하게 잘 드러난 선취시(禪趣詩)의 전범이 되어 절창으로 뽑히고 있다. 왕유는 '망천 20경'을 그림으로 그리고 시를 지었다. 소동파가 이 '망천도'를 보고 "시 속에 그림이 있고, 그림 속에 시가 있다"는 유명한 평론을 하였다. 남종화의 비조가 되어 중국은 물론 조선, 일본 문인들의 사랑을 받았다.

오언절구의 20자 짧은 정형시다. 1구(起句) "텅 빈 산 사람은 보이지 않고"에서 선의 고요와 적막함을 표현하고, 공산(空山)은 사람이 없는 텅 빈 산이다. 실체가 없는 반야 공은 불교의 깨달음의 핵심 내용을 상징한다.

2구(承句) "아득히 들려오는 두런거리는 사람의 소리 뿐"은 눈에 보이는 것(見)은 없으니 작은 소리라도(聞, 響) 있어야 살아 있는 활공(活空)이 된다. 적막뿐이면 죽은 공이다. 보조 지눌 선사는 "우리의 본래마음(자성 불성)은 공적하지만 신령스럽게 깨어 있는 적적성성(寂寂惺惺)하고, 공적영지심(空寂靈知心)"이라고 하였다.

푸른 이끼는 중생계, 석양은 자비광명 상징
왕유, 이끼서 생명력 있는 중생 모습을 봤다

3·4(轉結)구 "보라 석양빛이 숲 속 깊숙이 들어와 다시금 푸른 이끼 위에 비치네"는 반전(反轉)의 깨달음이 나타났고(返, 入), 부처의 은덕이 높고 넓게 비춘다(照, 上). 깨달음을 얻은 눈으로 부처의 광명이 온 누리에 빛나는 모습을 바라본다. 한시의 맛은 운율과 서로 짝이 어울리는 대구의 절묘함이다. 왕유의 시는 음율이 아름다운 것이 최고로 평가받았다. 전문 불교용어를 한 자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부처의 깊은 사상을 잘 드러내는 고수이다.

이 시의 소재는 푸른 이끼다. 깊은 숲 속 골짜기에 석양빛이 깊숙이 들어와 푸른 이끼를 비추는 전경은 참으로 아름답다. 양탄자처럼 바닥에 잘 달라붙어 보드랍게 깔려있는 푸른 이끼의 모습은 선경이다. 이끼의 미학이다. 여기서 푸른 이끼는 중생계의 모습을, 석양볕은 부처의 자비광명을 상징한다. 이끼는 바다 식물이 처음 육지로 나오는 선태류 식물이다. 적당한 습기가 있어야 하고, 햇볕도 약간은 있어야 하고, 바람 통풍은 필수적이다. 석양볕이 가장 좋다. 이끼는 홀로 자랄 수 없다. 군생집단으로 모여야 잘 자란다. 가난한 민초(民草)와 같다. 왕유는 푸른 이끼에서 생명력 있는 중생의 모습을 보았다.

지난해 아내와 아들 지수의 손을 잡고 늦겨울 해질녘에 일본 교토의 은각사를 참배했다. 은각사는 야트막한 산등성이를 끼고 자리 잡은 전형적인 일본 정원 문화의 정수를 꾸민 작은 산사인데 물이 졸졸 흐르는 골짜기 사이로 온통 푸른 이끼가 경내를 덮고, 하얀 은으로 단청한 법당이 단정하고 청아하다. 왕유의 시 '녹채(鹿野苑)'가 떠올랐다. 어디선가 불쑥 사슴이 나타날 것 같았다.

〈문화평론가〉

기자칼럼

이승만과 한국불교

이승만 대통령은 1954년 5월 20일을 시작으로 1955년 12월 8일까지 총 8차례 '유시'를 발표했다. 이승만 대통령의 유시로 인해 한국불교는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갈등을 겪었다. 분명, 교단 정화로 인해 비구승 중심의 불교 전통이 회복됐다는 점은 긍정적인 성과지만, 진행 및 방법상의 문제로 인한 후유증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이승만의 유시는 '정교분리'라는 헌법의 정신을 무시한 것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랬기에 "미국에서 오랫동안 유학했던 이승만이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라는 헌법의 정신을 무시하고 특정종교의 내부 문제에 대해 마치 제왕처럼 명령을 하달하는 식으로 개입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재헌)"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이다.

이승만이 남긴 그림자는 유시에만 있지 않다. 노골적으로 기독교계에 특혜를 주면서 기독교의 성장을 도왔다. 형목제도와 군목제도를 실시하고 1954년 한국 최초 민간방송인 기독교방송국과 1956년 극동방송국 설립에 특혜를 줘 선교 인프라의 구축에 큰 역할을 했다.

불교정화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이승만의 유시는 불교계를 싸움판으로 만들어 놓았다. 불교가 양분돼 갈등하고 있는 동안 이승만은 개신교 우대 정책으로 펼치며 현재 개신교 교세를 만들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

조계종 총무원과 태고종 총무원 사이 송현광장에 이승만기념관을 건립하겠다는 움직임이 있다. 현재, 조계종과 태고종은 송현광장 내 이승만기념관 건립을 반대하고 있다. 특히 태고종은 "목숨 걸고 저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이승만기념관 건립으로 다시 비구-대처의 갈라치기를 다시 시도하려 한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승만'이라는 외풍으로 또 흔들릴 수 없지 않는가. 불교는 '자강(自强)'해야 한다.



신중일 편집국 부국장

현밀 스님의 뭉밀이 佛스타툰



일일시호일

급성 난소염으로 날아간
신혼부부의 단 꿈

방글라데시 줌머인 난민 수라보니씨 결혼 · 정착 위해 한국행
결혼 일주일만에 하혈 후 난소절제수술…병원비만 1400만원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070.4707.1080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